



제목	The Folktales and Storytellers of Tribal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4. 3. 27.
저자	Erika Friedl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88
ISBN 또는 ISSN	978-1780766690

**내용 요약**

『이란 부족의 민담과 이야기꾼』은 민족지학과 인류학, 문학과 민속학의 방법론이 총동원되어 만든 책이다. 이 책의 저자 프리들(E. Friedl)은 민족지학적인 배경으로 페르시아 민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성실하고 예리하게 분석한다. 저자의 이러한 연구 태도와 연구 결과로 독자들은 페르시아 민담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프리들은 현대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신화와 민담을 바탕으로 집단 정체성 개념을 규명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여기에서 프리들은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 생성과 그것의 전달 및 조작에 신화와 민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965년부터 이란에서 인류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리들의 연구 방식과 분석 방법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선구적이다. 게다가 연구의 범위와 분량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예를 들면 프리들은 민속학 관련 연구에서 150여 편의 민담을 읽고 해석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민간 설화를 통해 때로는 달리 표현되지 않는 삶, 문화 및 현실에 관한 아이디어, 이해 및 의미를 밝혀내는 방식을 본다고 강조하다.